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출판부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연구·보전과 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립생태원 출판부는 2015년 5월 출판 사업을 개시하며 현재까지 약 100여 종의 생태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중 대상별 특성에 따라 누구나 쉽게 생태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점자도서, 큰글자책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특수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도서 신청을 안내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궁금해하실만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도서 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사회취약계층 대상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나요?

“누구나 쉽게 생태정보를 접하고 이해하게 하자” 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생태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며, 국립생태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들을 위한 점자도서, 큰글자책 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요! 개발할 콘텐츠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국립생태원 출판부에서 기존에 출간한 우수한 생태도서를 점자도서 등으로 변환합니다. 콘텐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더불어 생태동화, 분류군 및 종 등 생태정보, 생태교양 등 다양한 주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왜 무상으로 배포하나요?

국립생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립생태원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생태복지 제고와 모두가 생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어떤 곳에 배포하나요?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교육기관,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배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배포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없나요?

특정 지역, 기관에 치중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를 접하여 정보 소외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에 배포 목적이 있어 콘텐츠에 따라 한 기관당 최대 2부 정도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포 시 제작 및 보유수량 한계로 인해 수량 조정 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